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 1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 곳은 거룩하도다
- 2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 3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 4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둔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1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 2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 3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 담당

1/14(화)	1/15(수)	1/16(목)	1/17(금)	1/18(토)	1/20(월)
조국 안수집사	박배웅 안수집사	해성광 안수집사	최상호 안수집사	황재광 안수집사	정종수 안수집사

2025년 1월 17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07장
기도	최상호안수집사
성경봉독	로마서 4장 17~25절
찬양	내 맘이 낙심 되며
설교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322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로마서 4:17~25>

-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1월 17일(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놓여있든지, 생명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나날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태초부터 꿈꾸시며 계획하셨던 우리 새문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과 늘,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맡기신 자리마다 주님 주신 힘과 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당회와 제직, 교역자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해주시고, 두나미스 네팔팀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셔서 파송하신 기간 동안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헌당의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 정하신 날 온 성도가 헌당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새문안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오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 안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 가운데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여러 사건과 사고, 재해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감사와 평안과 화평이 넘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